

12월 첫째 주 케어모임

12월 첫째 주 설교 review

설교제목: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

성경본문: 열왕기하 7:3~11

- 성 안으로 들어가나 가만히 앉아있으나 끓어 죽기는 매 한 가지니 차라리 적진인 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가자고 말한 네 명의 나병환자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다.
- 하나님은 그런 네 명의 나병환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.
- 하나님께서 시리아 진영을 물리치셔서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적진에 들어가 먹고 마신 뒤 재물까지 챙겨올 수 있었다. 그 후 정신을 차리고나서 그 날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임을 깨닫고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렸다.
-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네 명의 나병환자와 달리 오히려 시리아 군대가 덮을 놓았다고 의심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였다.
- 네 명의 나병환자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양떼를 몰던 목자들이 행했다.
- 하나님은 네 명의 나병환자나 양떼를 치던 목자들처럼 평범한 우리를 통해 가장 특별한 좋은 소식을 전하신다.
- 네 명의 나병환자들이 먹고 마시며 맘껏 즐긴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맛보며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자.

생각해보고 나눌 질문

1.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?
2.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맛보며 누리고 있는가?
3.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지 나눠보자.